

# '91 PMA SHOW

3배쯤이상의 고배율화,  
AF 카메라의 초소형화 추세



삼성항공산업(주)  
배원철 과장

세계상품이란 무엇인가?

세계 카메라 시장에서 한국의 현위치는 어디쯤에 있으며 일본은 얼마나 앞서가고 있는가? 홍콩 대만 등의 추격을 뿌리치고 일본을 추월하기 위해 한국은 무엇을 지표로 삼아 얼마만큼의 노력을 쏟아야 할 것인가?

걸프전이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미국 LASVEGAS에서 개최된 제67회 PMA SHOW(2/21-2/24)는 이러한 물음들에 대한 답을 극명하게 보여준 계기였다고 생각된다.

## 1. 일본의 제품전략과 세계시장 추세

세계 카메라 시장을 강점해 온 일본의 제품전략이 변하고 있다.

포화상태에 이른 카메라 보급은 가족단위 소유 개념으로부터 개인단위 소유개념으로 전환되어야 할 시점이며, 일본은 고기능 제품으로부터 단순염가형제품까지 전가격대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염가화 경쟁에 제품군 양분화(고가·고기능/저가·저기능)와 작고 가벼우면서도 기능이 많은 제품을 생산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

한편 엔고 극복을 위해 추진되었던 생산거점의 해외이전은 그간의 생산경험의 축적과 함께 일본 염가형 제품의 안정적 공급기반으로 동남아국가들을 부상시키면서, 일본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주는 힘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전략에 따라, 세계 카메라시장은 가격·기능면에서 고기능·고가적 제품과 저기능·저가격 제품으로 양분화되었고, size 면에서는 소형·경량화 및 박형화(薄形化), Design 면에서는 개성중시·인체공학중시 및 곡선화라는 큰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시장가격은 MAKER간의 치열한 염가화 경쟁의 결과 지속적 하락세를 유지하

고 있다.

## 2. PMA SHOW 제품 상품 추세

한국이 주력 하고 있는 LENS SHUTTER 카메라를 중심으로 '90년 10월 PHOTOKINA, '91년 PMA SHOW에 출품된 주요 일본업체의 신제품을 유형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ZOOM은 3배 이상의 고배율화추세가 눈에 띄며, A/F 카메라는 초소형 제품 위주로 신기종의 출품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CANON  
CAMERA  
SURE SHOT  
MEGA ZOOM  
105



	ZOOM			DUAL (T.W)	A/F	F/F	계	
	3×	2×	1.5×					
기존기종	5	8	3	7	12	8	43	
신 기 종	5	5	2	6	5	6	29	
업체	PENTAX	1	-	1	-	-	2	
	CANON	1	-	-	-	-	1	
	Nikon	-	1	-	-	-	1	
	MINOITA	1	-	-	1	1	4	
	OLYMPUS	1	1	-	1	1	4	
	KONICA	-	-	-	-	2	-	2
	FUJi	1	2	-	4	1	2	10
	KYOLERA	-	1	1	-	-	3	5

### 1) ZOOM

L/S 카메라 시장의 35%를 점유하고 있는 ZOOM 기종은 Compact한 외관, 다양한 기능 등의 특징으로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1.5배~2배 ZOOM은 업체별로 치열한 경쟁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일본의 대량저가 판매방식에 대해 가격하락이 지속됨에 따라 부품수를 줄이고 기능을 단순화시킨 엮가형 위주로 신제품이 출시되고 있으며, 3배 이상의 고배율 ZOOM은 고기능과 NEW CONCEPT DESIGN으로 2배 이하의 ZOOM과는 차별화시킨 고가제품으로 일본 본사내에서 생산해온 제품군이었으나, 금번 PMA

### ▲일본카메라 업체의 신제품 유형별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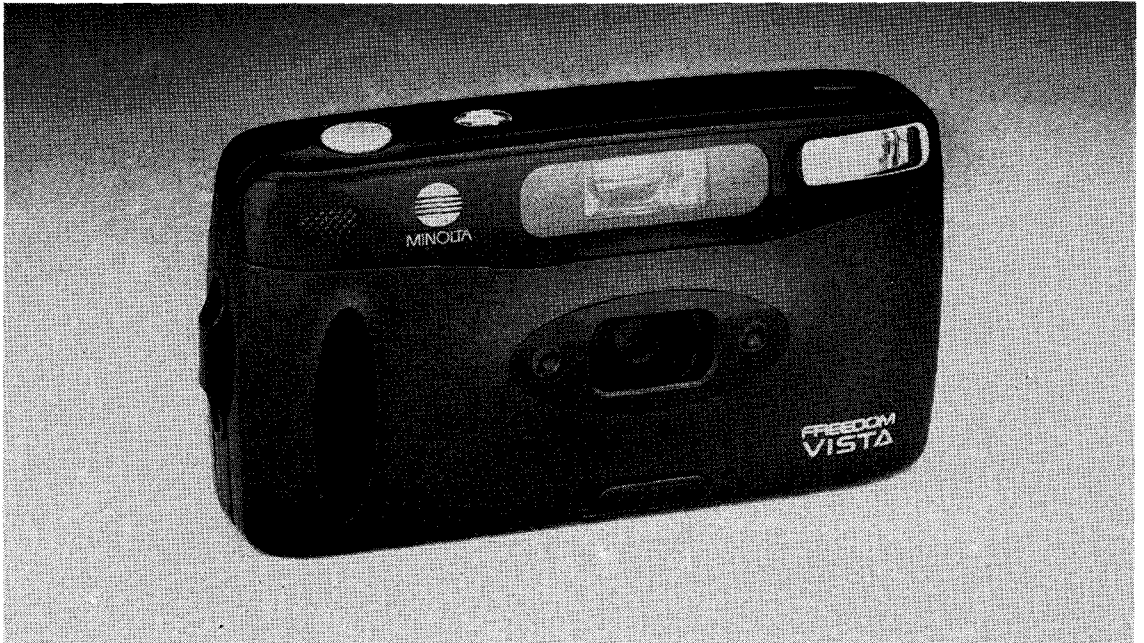
SHOW에 발표된 CANON의 SURESHOT MEGA ZOOM 105는 고배율 ZOOM 군에서도 엮가화 경쟁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고 있다.

따라서, '91년에는 2배 ZOOM의 가격이 대폭적으로 하락하여 생긴 가격대의 공백까지 3배 ZOOM 가격이 하락하게 됨으로써 가격 전쟁이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 2) 단초점 A/F 카메라

#### ① 초소형 A/F 카메라.

'89년 일본 KONICA사에서 휴대하기 간편하면서도 기능은 우수한 초소형 카메라라는 CONCEPT로 A4를 소개하여 관심을 끈



▲ Minolta Freedom Vista

이래, 일본의 우수 메이커들이 속속 초소형 카메라 개발에 뛰어들어 신제품을 발표함으로써, 기존의 A/F 카메라와는 차별화되는 별도의 제품군(FORMAT)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현재까지 발표된 제품으로는, 선발업체인 KONICA사의 A4 및 후속기종 BM 201, 삼성의 AF-SLIM, PANASONIC 의 SUPER MINI C-625AF, FUJI 사의 DISCOVERY MINI DUAL, MINOLTA 사의 FREEDOM VISTA와 이번 PMA SHOW 를 통해 선보인 Olympus사의 Infinity Stylus가 있는데, 기존의 초소형 카메라 개념에 추가하여 dual lens(Fuji) Red eye reduction flash(Panasonic, Olympus) 24mm wide lens(Minolta) interval 및 Continuous Shooting (삼성)등의 기능이 추가되는 한편, 他 FORMAT과 같이 염가화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ZOOM과 함께 시장을 주도할 제품 FORMAT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금번 PMA SHOW에서 발표되어 유면곡선을 채용한 유려한 design으로 인기를 끈 Olympus 사의 Infinity Stylus나 '90년 PHOTOKINA SHOW에 소개된 Fuji사의 Discovery Mini Dual은 초소형 카메라 시장의 성장가능성을 예견케 하는 우수제품이라 할 수 있겠다.

#### ② conventional type A/ F 카메라

대만·홍콩을 비롯한 동남아 카메라 maker 들의 기술습득이 이미 완료된 초소형 외의 기존의 A/F 카메라는 해외에서 생산된 일제 염가형 카메라의 대량시장유입과 이에 저가를 무기로 대처할 수 밖에 없는 대만·홍콩산 카메라가 시장가격 하락을 선도하고 있는 데다가, GULF 전에 따른 소비자 매매심리 위축으로 인해 유례없이 부진한 판매를 보인 '90년 크리스마스 시즌의 유통재고가 시장가격 하락을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상존하고 있어, '91년에도 심각한 가격혼조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면곡선을 채용한 유려한 design  
으로 인기를 끈 Olympus社의  
Infinity Stylus



### 3) 기술적 동향

Spec면에서는 단순한 기능만의 추가가 아닌, 사진을 잘 찍히게 하는 실용적인 기능의 탑재추세가 두드러진다. 예컨대,

- Red eye reduction flash 기능 (Olympus, Fuji, Canon, Pentax 등)
- Multi Beam Auto Focus 기능(Fuji, Minolta, Chinon 등)
- Multi Zone metering (Minolta)
- Landscape Button (Fiji) 등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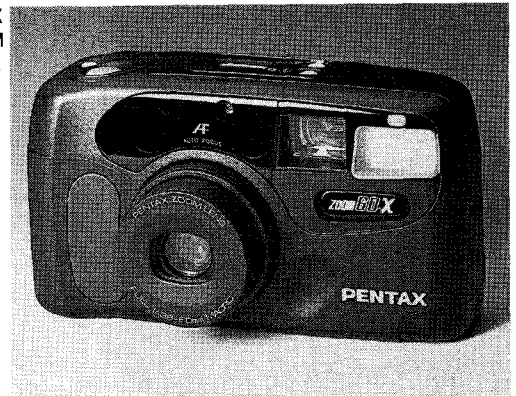
### 3. 국내 카메라업계의 나아갈 방향

한국의 카메라 산업은 성장과 후퇴의 기로에 서있다. 협소한 국내시장 규모는 해외 시장개척을 성장 전략으로 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해외시장에서의 여건 또한 일본과 후발 동남아 국가들의 틈바구니에서 기술과 품질 그리고 가격경쟁력면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 카메라 산업의 현주소이자 딜레마이다. 여러 면으로 앞으로의 수년간은 한국 카메라 산업의 향배를 가름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일본업체들의 치열한 신제품 개발 경쟁, 염가화 경쟁 속에서 제품개발력, 마케팅력, BRAND 인지도, 품질 등 모든 면에서 절대적 열세에 처한 한국업체가 찾아야 할 사활의 묘수는 무엇인가? 역사에서 배우지 않고

▶PENTAX  
IQZOOM  
60-X



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이다. 일본이 지금의 카메라 왕국으로 성장하기 까지 정부, 업계 그리고 각 카메라 maker와 종업원들은 어떻게 노력해왔는지 연구하고 체득해야 할 것이다.

일본이 초기 수출 단계부터 JCI를 통해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여 일본 카메라의 품질의 우수성을 심어 나갔으며, 정부차원에서 카메라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점은 우리 업계나 정부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점이 아닐까?

이런 의미에서 이번 PMA에 우리업체가 BOOTH 공동 임차 등 업계차원의 노력을 기울렸던 것은 앞으로 우리업체가 주요핵심 부품의 국산화, 품질 관리 등 다방면에 걸쳐 지향해 나가야 할 업계 공동 대응의 작은 첫 걸음이라 할 수 있겠다.